

축 사

오늘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제5세 종정으로 추대되신 법담 정각스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은 1960년대에 한국불교를 해외에 널리 알리시고 교류하신 일붕 서경보스님께서 창종하신 이래 전국에 1,000여 사찰에서 2,000여명의 스님들이 불법포교를 위해 정진하고 계십니다.

이번 제5세 종정으로 취임하신 법담 정각스님은 수행과 교화를 두루 겸비하셨고 초대 종정을 역임하신 일붕스님의 유지를 계승하여 종단 중흥과 한국 불교 발전을 위한 큰 원력을 세우셨기에 사부대중 모두에게 큰 기쁨이라 하겠습니다.

한국불교는 1700년의 역사 동안 우리민족과 함께 했습니다. 불교는 우리 민족의 정신이며, 우리 민족의 문화입니다. 그러나, 근자에 우리 민족전통문화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편향된 종교적 이해 그리고 종교갈등의 증가는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 모두가 민족전통문화를 아끼고 수호하는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 자성과 쇄신으로 정진하여 불교중흥에 함께 합시다.

다시 한 번 법담 정각스님 제5세 종정취임을 축하드리며,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의 무한한 발전과 중흥을 기원합니다. 더불어 올 한해에도 모든 불자들의 평안과 계획하신 일들의 원만 성취를 기원 드립니다.

불기 2555(2011)년 2월 22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 승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